



남원자원봉사센터, 여름나기 건강 꾸러미 지원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 지역 내 취약 계층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 '2026 전북 희망여름 착!착! 착! 나눔 캠페인 공모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양식과 여름철 생활안전용품으로 구성된 '여름나기 건강 꾸러미'를 제작해 산내면의 폭염 취약 75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꾸러미에는 수건, 양우산, 모자, 팔토시, 파일갑 등이 담겼으며, 봉사단은 꾸러미 전달과 함께 폭염대응 행동요령,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탈수 예방 등 여름철 건강 수칙 교육을 병행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우 등 일상 속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덕과면, 위기가구 대상 통합사례관리 진행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문제와 주거환경 악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사례관리 대상자는 모자가 생활하는 취약 가구로, 장기간 저장장박 증상으로 생활공간 내 각종 물건과 생활폐기물을 적차해 위생 및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덕과면 맞춤형복지팀은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신건강 상담 지원, 주거환경 개선, 복지서비스 안내 및 정기 모니터링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남원경찰서(서장 문영상)는 21일, 경찰서장, 과장, 지역관서장 등 관리자 19명을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및 경찰청 훈령에 따라 관리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파수꾼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성평등정책 행정관 소은선 강사를 초빙해 진행, 실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사례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2차 가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가이드라인 등을 다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KAIST와 AI 기반 신소재 의료기기 개발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카이스트 AX학과, 환자 맞춤 의료기기 연구 맞손

전북대학교병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KAIST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탄소소재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센터장 한갑수)가 최근 KAIST AX학과(학과장 유승화)와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의 AI 전환(AI) 기술 협력과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용 소재와 신소재 의료기기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설계부터 제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고,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설계·평가 기술 개발 △AX 기반 스마트 제조기술 고도화 △바이오·소재 AI 및 물리·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글로벌 신소재 의료기기 AX 제조 기반 구축'을 공동 목표로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과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설계·평가, 스마트 제조기술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재 개발부터 의료기기 제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이 보유한 임상 경험과 탄소소재 의료기기 연구 역량에 KAIST의 세계



적인 AI 기술력이 더해져 의료기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 개발과 임상,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을 선도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갑수 센터장은 "KAIST AX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신소재 의료기기 분야의 AI 전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승화 KAIST AX학과장은 "AX와 신소재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융합해 설계부터 제조·평가까지 전 주기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을 이끌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부안소방서, 소방서장 특수가연물 공장현장 지도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지난 20일 여름철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관내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제조업 공장을 찾아 소방서장 주관 현장행정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행안면에 위치한 주(주)래케미칼을 대상으로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등 합성수지류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3,000kg)의 33배에 달하는 100,000kg 취급하는 PVC 창호 생산 공장이며,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위험이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날 최 서장은 예방안전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한길호 대표 등 관계인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 시설과 소방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소방서, 고수원광어린이집 어린이 안전교육

고창소방서는 21일 고수원광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소방서 견학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이 준비한 간식을 전달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아들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요령과 119 신고 방법 등 다양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며 위기 상황에서의 올바른 행동요령을 익혔다.

또한 급급차와 펌프차를 직접 견학하며 소방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원아들이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간식을 전달하며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소방서, 남원 광한루 화재 대응 훈련 실시

남원소방서는 21일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 현장대응단 주관으로 중요 목조문화유산 화재 대응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7월 1일 자료 남원 광한루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 최고등급 문화유산의 위상에 부합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화재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 △문화재 훼손 최소화 전술 점검 △소방용수 및 자체 소방시설 활용 연계 △차량 부서 위치 도식화로 소방차량의 최적 진입로 및 부서 위치 사전 확보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내 여성농민 500명 정읍에 모였다... 전북여성농민한마당 열려

'2026 제27회 전북여성농민한마당'이 21일 정읍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도내 여성농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여성농민들이 영농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데도 의미를 뒀다.

행사는 정읍시여성농민회를 비롯해 군산시·익산시·전주시·김제시·고창군·순창군·임실군 여성농민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이 주관했다.

오전에는 여성농민 정책 축제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개회식과 초청공연, 여성농민 정책공연,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업 현안과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역할을 함께 고민했다. 시·군별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을 넘어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종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010-9642-272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